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 / 여 익 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⑦

모든 직책 벗고 야인으로 돌아가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했다. '화랑대회'라는 호국적 이미지보다 '한국불교1600년대회'라 하여 민족성을 강조했다. 공연예술클ubs를 초청해 문화공연을 열었고, 젊은 불자들의 진취성을 고무시켰다. 1981년 여름 범주사 부근 초등학교를 빌려 개최한 대불련 수련대회에는 평년보다 몇 배 많은 700여 학생들이 운집해 성황리에 마쳤다. 불교계에서 여익구의 인지도가 상승한 것은 물론이다.

그 이듬해 스님들을 중심으로 대불련지도법사단이 발족했다. 여익구의 주도였다. 지도법사단은 1977년 겨울 월정사 화엄산림에서 만났던 스님들, 10·27법난으로 자각했던 스님들이 여익구의 민주화 및 불교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지도법사단의 정신적 물적 지원은 19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이 탄생했고, 승려 중심의 운동단체인 정토구원전국승가회 등이 결집하기에 이른다.

민주화운동에 스님들이 참여함으로써 불교계 역량의 움직임은 물론 그 위력이 배가됐고 군사독재를 무너뜨리는데 일조했다. 그 인연관계를 뒤돌아보면 1970년대 중반 탄허 스님과 여익구가 뿌린 민주화의 씨앗이 있었다.

민주화 과정에서의 치열했던 상황과 달리 회고하는 여익구의 눈에는 웃음마저 머물고 있다. 최루탄이라는 말 한마디가 알려주듯, 엄혹한 시간이며 암울함이 끝없이 펼쳐지던 시간을 짐짓 호탕한 목소리로 달래고 있다. 1983년 신홍사 사태로 여익



회계사택생원 건물

구는 비상종단운영회의에 참여했지만, 끝내 개혁종단으로 이끌지 못했다. 이듬해 여익구는 모든 직책을 벗어던지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보수세력이 쳐들어와가지고 총무원 뺏겼어. 중앙권력을 뺏었다 말이지. 그러니까 다 쫓겨났어. 이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했던 동지들이 또 그러니까 동지들한테 실망을 해서 동지를 떠났는데 동지들도 쫓겨났으니까 난 더군다나 입지가 없는 거예요."



여익구는 1984년부터 글 쓰는 일에 몰두하면서 여러 곳에 민중불교운동 관련 내용을 기고했다. <민중불교 입문>(1985)도 썼다. 민중불교운동연합은 어느 순간에 결

성된 것이 아니라 탄생의 충분한 배경을 갖는다. 종단운영회의에 참여하면서 종책 연구소를 만들었다. 또 여익구는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을 창립했다. 이는 당시 재야에서 민민협이나 민동련 등이 결성되던 시기와 함께 한다.

1985년 여익구의 활동은 현저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1970년대에 일대했던 스님들의 지지기반과 활동 지원이다. 1980년 굶육이었던 10·27법난에 이어, 1983년 신홍사 사태로 여익구는 스님들을 다그쳤고, 스님들은 선봉에 선 여익구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대불련 지도법사단 스님들과 화엄산림에서 인연 맺었던 스님들이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지지기반을 확대했다. 1985년 쫓기는 몸으로 여익구는 민중불교운동연합 결성을 위한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6개월이 소요됐다.

드디어 창립일이 가까워졌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1985년 5월 4일을 D데이로 잡았고 장소는 한글회관으로 정했다. 그 안선생이 연설하기로 약속했고, 자신이 취임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새를 알아챈 경찰이 어김없이 한글회관 진입을 막았고, 여익구 등 일행은 세종로까지 밀렸고, 미리 예약했던 식당에 들어갔다.

문무왕의 불교신앙과 문화유산 ㉓ 신라상감

석굴에서 우리의 흔적을 만나다



용문석굴에도 한국불교와 연관된 유적이 있다. 용문석굴 사이에 신라상감(新羅像龕)이라고 불리는 유적이 있다. 신라불교의 흔적이 중국의 3대 석굴사원 안에 남아 있다. 조성된 시기는 현재 용문문물원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705~712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불상은 5기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조성양식을 볼 때 3존불과 가섭, 아난을 조성한 당대 양식에 따라

련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원축의 문화에 있던 도중(道中)과 승장(勝莊) 등의 신라승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승장의 경우는 원축이 입적한 뒤에 그의 사리 중 일부를 가지고 종남산 풍덕사 동쪽에 탑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러한 유가 유식계열의 신앙이 우리나라에도 널리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 당나라 당시 북도라고 불리던 산서성 태원 지방에 있는 천룡산 석굴

용문석굴의 신라상감은 신라불교 흔적

낙양 등서 신라불교인 활동했음을 반증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상은 도굴되어 남아 있지 않고 입구 부분의 신라상감이라는 글자만 선명하게 남아 있다. 용문석굴의 신라상감은 신라불교 관련 유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중국 내에서 신라의 이름을 조각한 석굴이 있다는 것은 신라불교의 중국 내 역량의 비중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석굴의 조영을 통해볼 때 낙양지역에 있어서 신라불교인의 활동과 이를 후원할 기반이 마련된 점을 찾을 수 있다.

낙양을 중심으로 한 허난성(河南省, 허남성) 지역은 축천무후 당시 수도로서의 역할과 함께 중요한 불교거점의 하나였다. 축천무후의 후원을 받아 튀양은 불교의 중심지로 성세를 구가할 수 있었고 당시 신라승려들도 이러한 불교의 발전에 따라 많은 이들이 낙양에서 활동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에는 신라출신 승려로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원축이 많은 관

중 서봉 21굴에는 고구려 출신 순장군과 백제출신 축치상지의 딸이 석굴을 조성했다고 하는 기록이 <금석취편>(대당불부장군공덕기)에 남아있다. 이 석굴은 현재 미국의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지만 당나라 당시 화려한 조상의 현식과 한국 출신의 유민들에 세운 굴이라는 점에서 중국과의 불교교류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 21굴 불상은 당나라 당시에 천룡산 석굴에 조성된 불상양식을 대변하고 있다.

법열(悅悅)의 즐거움 보다는 인간적인 곡선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 불상이 우리 민족의 손에 의해서 조성되었다는 점 또한 우리나라 불교의 흔적과 신앙의 원류를 찾는 일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다.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황칠명인 구영국 교수의 전통문화산책-2

왕만이 먹을 수 있던 황칠 나무의 새순

먹는 음식에 따라 우리의 건강이 좌지우지된다고 한다. 좋은 음식은 건강하고 좋은 사람을, 좋지 않은 음식은 독하고 고약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의사가 말했었지만, 식생활이 장수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먹는 것에 따라 질병이 생기기도하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느 소중한 음식이 우리에게 이롭고 좋은 음식으로서 도움이 될까? 필자는 우리의 신비한 전통에서 얼마든지 좋은 음식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 가까이 전통문화 보물창고에서 존재하고 있다.

새싹비빔밥은 산뜻하고 맛이 있는 새순 식물이다. 모든 식물의 새순은 싱그럽고 깨끗하고 상큼하고 신선하고 싱싱하다. 대나무의 새순을 따서 먹고 신선한 두릅나무의 새순인 두릅을 먹고 온 나무를 먹고 새싹을 먹어보자. 그렇게 먹어보는 순간 뽕

지 모를 좋은 느낌이 오고 싱싱한 에너지가 자신의 몸을 감돌면서 자연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 볼 수 있는데, 순자원의 힘을 생명의 흡인력을 통해 자신의 인체가 닦아내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에도 충분히 자연음식으로 내기 좋은 것이 있다.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취득한 음식보다 계곡에서 찾아내는 약초가 그것이다. 하천·계곡이나 좋은 산에 스스로 자생하며 튼튼하고 건강하게 약으로 자라온 우리국토의 땅을 기쁨으로 품고, 세월을 지며 온 옷나무의 옷 순을 우선 말하고 싶다. 옷나무에서 봄 내음을 내미는 새순인 옷순은 웰빙음식으로 그만이다. 다른 음식과도 전혀 손색이 없음을 어찌면 그래서 참 좋은 음식이다. 이 옷순은 그냥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거나, 튀겨먹으면 건강 유지를 기하고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상당히 유익하다. 이런 사실은 인간 스스로 자

연 치유력을 더욱 배가 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고, 특히 위가 안 좋은 사람에게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자연 치유 약이 된다. 물론 체질에 맞아야 하지만 말이다.

세상에서 소중하고 귀하며 희소해서 마음대로 먹어볼 수 없는 것,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어보지 못하는 최상의 음식이 또 하나 있다. 옷순 위의 황칠순이다.

황칠나무의 새싹인 이 황칠순은 세상 사람이 전혀 먹어보지 못했다. 특별히 왕실과 궁에서 썼다고 보이는 새싹이고, 따라서 마음이 탁하고 욕심이 많은 일반사람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해심이 없고 제 잘난 척 하곤 하는 소인배는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신은 또 많은 이들에게 이 황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신비의 나무이며 신이 내려준 이 황칠나무의 새순은 결코 아무나 먹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었으니 참으로 귀한 것

이 사실인가 보다. 황칠원액은 또 어떠한가. 황칠을 먹을 수 있다면 최상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은 그 누구에게 어떻게든 귀한 행운을 주지 않으므로 황칠을 마음대로 채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다는 점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될 일이다.

황칠나무 모두의 하나하나에서 황칠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마는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그 진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왜 옷나무처럼 모든 나무마다 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여기에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전통 황칠장인이 이제라도 간직하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백제황칠명인 제1호

영남범패학인모집

영남범패불음원 진주 교육원에서는 영남범패의 계승과 보존을 위하여 뜻을 같이 할 제 10기 신입생 학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래 -

- **입교일시**: 2011년 6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 **교육장소**: 경남 진주시 이현동 이현상가 406호
- **문의전화**: 진주 055)747-8419
- **수강일**: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6시
- **교육기간**: 6개월 과정
- **교육내용**: 1. 각단 불공 및 재의식
2. 사물다루는 법
3. 바라 및 승무작법
- **수강자격**: 삭발의의한 출가승려에 한 함
- **수강료**: 월 10만원 <교재비 별도>
- **준비물**: 필기도구 및 녹음기
- **카페인내**: Daum에서 영남범패불음원을 쳐 보세요

영남범패불음원장 원명 합장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해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종안내



총무원장
무공당 해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범당사진(내, 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중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침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 감독을 주지인으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해봉 스님 직통 011-545-5060

한방(韓方)치료로 갑상선,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은

상담 받아 보세요.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술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클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408-중-8421호

명상수련

삶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명상을 하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집니다. 명상수련은 인생에서 부딪치는 많은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줍니다.

"심산의 맑은 생수만 마시며 단식으로 다이어트, 고혈압, 당뇨, 과민성대장, 아토피, 피부미용, 체질 개선, 금주, 금연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고요한 산속 명상수련원에 오셔서 황폐하여진 당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세요. 그리고 모든 장애의 속박에서 벗어나 대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① 수련기간 : 7일

매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입소
다음주 토요일 오후 1시에 퇴소

② 침실은 1인 1실 : (수련은 강당에서 단체로 합니다)

금정산 명상수련원 (금윤선원)
경남 양산시 동명 사송리 1036-1
055)383-7009 / 011-556-5830